



發明振興基金造成을 위한 提言

—認識提高는 文教行政次元서부터—

世宗大王께서 測雨器를 發明하신 1441年(世宗 23年) 5月 19日을 發明의 날로 制定한 1957년부터 發明의 날 行事를 每年 舉行하여 오다가 科學技術에 대한 政策的 配慮가 未洽한데다 發明에 대한 國民의 認識이 낮았던 탓으로 1973年에 商工의 날 紀念行事에 吸收되는 迂餘曲折을 겪다가 10年만에 다시 지난 5月 19日에 뜻깊은 發明의 날 行事를 갖게 되었다.

때늦은 감은 있으나 이제부터라도 우리나라 發明振興政策은 새롭고 더 높은 次元에서 推進되어야만 技術立國의 興望을 達成할 수 있다고 본다.

더우기 賦存資源이 貧弱한 우리의 現實을 克服하면서 점점 熾烈해지는 國際競爭時代에서 우리가 살아 남는 길은 發明獎勵를 통한 新技術蓄積으로 國家產業의 對外競爭力을 提高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 時點에서의 發明振興 施策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意義를 가지게 된다.

이와같은 時代的 要請에 副應하여 올해부터 政府에서는 發明家의 士氣振作과 發明意識鼓吹 및 發明風土造成을 위한 여러가지 支援施策을 펴고 있는데 대하여 關係業界의 한 사람으로서 흐뭇한 마음 금할 수가 없다.

이와 더불어 發明振興事業을 實質적으로 遂行한 民間團體인 韓國特許協會를 擴大改編, 韓國發明特許協會로 再出帆시킴으로써 우리나라 發明振興事業에 새로운 轉機를 마련하였다.

政府의 發明振興施策에 따라 韓國發明特許協會에서 展開하고 있는 發明振興事業을 全國優秀發明品展示會, 優秀發明試作品製作補助, 海外出願補助, 國際發明品展示會出品支援, 發明의 날

紀念行事 主管 및 發明有功者褒賞, 學生發明品展示 및 優秀發明作文募集 施賞 등을 통하여 汎國民의인 發明意識構造의 改善과 發明人口의 底邊擴大, 發明人의 研究活動支援 및 士氣振作, 企業의 發明雰圍氣造成을 위하여 힘을 기울이고 있다.

發明振興基金은 技術立國의 基本임과 동시에 大前提的 必須要件이 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그 事業의 性格이서 規模로 보아 尙大한 豫算이 所要되기 때문에 하루 속히 發明振興基金을 造成하여 活性있는 事業을 벌일 수 있는 土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또한 發明振興을 위한 法的, 制度的인 支援改善策도 併行되어야 할 것인 바 現存하는 發明保護法을 再活시켜 發明品을 開發하여 生産, 輸出하는 企業이나 個人發明人이 惠澤을 받을 수 있도록 法運用上의 問題點을 補完해서 施行하도록 노력하고 文教行政面에 있어서도 어린學生 때부터 發明을 生活化할 수 있는 教育에 力點을 두어 成人이 되더라도 發明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基本的 바탕을 심어주는 것이 얼마나 重要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올해 政府가 發明振興事業을 위해서 처음으로 關係豫算을 마련해 준 것은 우리나라 發明風土造成을 위해서 더없이 多幸스러운 措處라고 하겠으나 所期의 關聯事業을 推進하는데는 그 豫算이 너무도 未洽하다 할 수 있겠다.

發明의 날 行事費用은 政府가 各種 行事의 簡素化方針에 따라 적은 豫算을 計上한 것은 이해가 간다고 하겠으나 優秀發明試作品製作補助金, 優秀發明品展示會開催支援金, 海外出願補助金, 發明人研究支援特別賞金 등에 필요한 豫算은 그

一次로 國庫서 다음에 民間出捐金으로

田 峻 恒

〈辨理士, 本會 副會長〉

目的 使用에는 너무 不足한 感을 준다.

一例를 들어 零細發明人이나 個人發明家의 아이디어를 產業과 連結시키기 위해 發明試作品조차 資金이 없어 製作하지 못하는 者들에게 選別하여 試作品을 만들어 주는 始作俑者보조금은 모두 5千4百萬원으로서 1人當(1件當) 400萬원 내외의 補助限度밖에 안되는데다 그것도 極貧者 이외에는 50~80%를 보조하고 그밖에 自己負擔金이 필요하기 때문에 結果적으로 發明考案의 技術性이 低位에 있거나 簡單한 것이 아니면 惠澤을 받을 수가 없는 實情이다.

그러나 發明振興事業의 活性化를 위해 所望스러운 것은 發明振興基金을 하루속히 造成하는 일이다.

위에서 言及한 여러가지 事業을 汎國民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財源은 政府와 民間이 合心해서 造成한 發明振興基金으로 調達해야 하는데 이 資金은 政府에서 1次的으로 마련한 바탕위에서 民間企業이나 篤志家가 이에 呼應하여 年次別로 基金을 늘려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發明獎勵의 歷史가 近 1世紀에 이르는 日本의 實例를 보더라도 初期에는 政府의 出捐金을 關係團體인 日本發明協會에서 管理運用하도록 하고 漸次 民間企業이나 個人有志들이 誠金을 寄託하여 發明振興基金을 마련하는데 參與하였다.

이 基金은 當初부터 初·中高中生, 大學生, 敎職員, 一般 등을 對象으로 한 發明振興表彰事業, 發明展示事業 등을 日本發明協會가 主管하여 傳統있고 活潑하게 推進해 옴으로써 世界에서 으뜸가는 出願國이 될 수 있는 底力을 培養해 왔으며 通產省, 特許廳, 科技廳 등 關係部處는 물론 日本國皇室에서도 發明振興事業에의 配慮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제 우리도 政府의 政策的인 配慮와 民間企業, 個人篤志家의 積極인 呼應으로 發明振興基金을 마련하여 새로이 出帆한 韓國發明特許協會에서 主體가 되어 基金의 効率的인 管理는 물론 우리나라 產業發展에 寄與하게 될 發明技術의 振興을 위하여 여러가지 事業을 벌여야 할 것이다.

歐美先進國이나 日本이 오늘과 같이 技術立國을 바탕으로 世界商品市場과 技術市場을 同時에 支配하게 된 것은 偶然한 事實이 아니고 일찌기 發明의 重要性和 그 必要性을 국민들에게 일깨워 줄 수 있는 發明振興施策과 獎勵事業을 꾸준히 展開해온 結果임을 우리는 새로이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政府와 企業 그리고 一般이 보다 더 發明의 중요성을 認識하여 우리가 살아나갈 길은 오로지 發明을 하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銘心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發明史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13世紀의 高麗靑瓷와 金屬活字의 發明, 世宗大王 때의 測雨器, 海時計, 晷時計 그리고 宣祖大王 때의 거북船 등 各各 人類史에 최초의 것을 발명한 슬기찬 祖上의 實績을 이어받은 史實을 우리대에 다시 꽃피울 수 있는 轉機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發明振興事業은 發明振興基金造成의 바탕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強調하고자 한다.

끝으로 우리나라 國民 특히 上流層에서 發明은 여기에 專念하는 發明人들만이 해야 한다는 前近代의이고 近視眼的인 認識과 固定觀念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야 하며 이와같은 意識構造가 改善되지 않고서는 發明振興을 위한 努力과 그 效果는 滅殺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도 아울러 指摘하고 싶다.